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성실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의회

생태공원관광·친환경계획분야 합동연수
대 만
2017. 5. 26 ~ 5. 30(4박5일)

차

생태공원·관광·친환경계획 분야 벤치마킹
2017년도 합동연수 보고서



원도군의회

I. 공무국외연수 개요	2
II. 연수일정	3
III. 연수국 현황	5
1. 대 만 현 황	5
2. 방문도시 현황	12
IV. 주요기관 연수 결과	14
1. 타이페이시의회	14
2. 타이페이시 재해응변센터	18
V. 주요 방문지 연수 결과	20
1. 용산사	20
2. 지우편	21
3. 야류지질공원	23
4. 101 타워 전망대	24
5. 국립고궁박물관	27
6. 총렬사	30
7. 중정기념당	30
8. 화련 태로각 협곡	32
V. 연수소감 및 총평	34

2017년도 완도군의회 해외연수 보고

요			
체 형 주제 및 분야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실현 방안(생태공원·관광·친환경계획 분야) 선진 외국에 대한 연수·체험기회를 통한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을 배양하고 의원의 발전적이며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능력을 향상시켜, 완도군 균형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주요시책 수립 등 대응방안 강구와 지역의 세계화·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체험국가	대만		
방문기관	타이페이 시의회		
연수인원	8명(의원5, 의사과수행공무원3)		
연수기간	2017. 5. 26(금) ~ 5. 30(화) / 4박 5일		
연 수 자 인적사항	연 수 대 상 자		
	일련 번호	직 위	성 명 영 문
	1	의 장	박 종 윤 PARK-JONGYUN
	2	부 의 장	서 을 윤 SUH-EULYUN
	3	의 회 운 영 위 원 장	조 인 호 JO-INHO
	4	산 업 건 설 위 원 장	박 성 규 PARK-SUNGKYU
	5	의 원	김 동 삼 KIM-DONGSAM
	6	직 원	안 봉 일 AN-BONGIL
	7	의 원	조 봉 흘 CHO-BONGHEUM
8	직 원	지 민 규 JI-MINGYU	

II 연수 일정

월 일	시간	주 요 일 정
제1일 5/26 (금)	08:30	인천공항 집결
	10:35	인천 공항 출발
	12:05	타이페이 공항 도착(2시간 30분 소요) 중식후
	15:00	■ 공식방문 : 타이페이 시의회 대만의 선진 의회정치 현황 비교시찰 ○ 대한 상호 정보교환 ○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전략 비교시찰 ○ 주요 관심사항 논의 및 자료수집 ▣ 특별시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시찰 및 상업지구 운영 시스템 및 실태 분석 *****
	19:00	석식후 용산사, 야시장 견학
제2일 5/27 (토)	전일	□ 현장시찰 ▶ 주민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물 운영현황 시찰 ▶ 친환경적 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심 속 생태공원 운영 실태조사 ▶ 지역 활성화 정책 및 관광산업 진흥책 비교시찰 ***** 지우편, 북해 야류 해안공원, 101빌딩 제진설비 견학

제3일 5/28 (일)	전일	<p>■ 활성화 정책 및 관광산업 진흥책 비교시찰</p> <p>개발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국가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수익 극대화 정책 및 운용실태 비교시찰 ○ 관광수익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정책 <p>*****</p> <p>고궁 박물관, 총렬사, 중정기념관, 타이페이시 재해응변센터 등</p>
제4일 5/29 (월)	10:00	<p>■ 지역 활성화 정책 및 관광산업 진흥책 비교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녹지조성 및 조경실태 자료수집 <p>*****</p> <p>조식후 열차편으로 화련으로 이동</p> <p>태로각 협곡, 치상탄 해변 등</p>
제5일 5/30 (화)	10:00	<p>□ 현장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우선정책 및 도로계획 운영실태 현황시찰 ▶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부의 효율적 대처와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실태와 개선정책 파악 및 벤치마킹 <p>공항으로 이동</p>
	13:25	타이페이 공항 출발
	17:00	인천공항 도착 / 강평후 해산

III 현황

1. 대만 현황

◎ 국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 타이페이 ◆ 인구 : 약 23,464,787명 ◆ 면적 : 35,980km² ◆ 언어 : 중국어(만다린), 타이완어, 객가어 ◆ 민족 : 대만인(84%), 본토중국인(14%), 원주민(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 : 불교·도교 혼합(93%), 기독교(4.5%), 기타(2.5%) ◆ 역사 : 3세기 중엽 중국의 삼국시대 때 심형(沈瑩)이 저술한 《임해수도지(臨海水土志)》에서는 타이완을 이주(夷州)로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문헌 기록으로 거의 초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만(타이완)은 선사시대에는 말레이-인도네시아 계통의 종족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오랜 세월을 두고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대만에 정착했음. 1590년 포르투갈인이 이곳을 처음으로 방문해 '아름다운 섬'이란 뜻의 일하 포르모사(Ilha Formosa)라고 부르고 동 명칭으로 서양에 소개했으며, 1626년 이전에 네덜란드인과 스페인인들이 섬의 서쪽 해안을 따라 요새화된 상업지구를 세웠으나, 1642년 필리핀 내란으로 스페인이 대만 북부에 신경을 쓸 틈이 없는 사이에 네덜란드가 스페인 점령 북부지역까지 차지하고 네덜란드는 동인도회사를 통해 대만을 직접 관할하게 되었음. 	

◎ 일반 현황

- GDP : 5,191억\$ 세계22위 (2016 IMF 기준)
- 기 후 : 북부지역은 아열대기후, 남부지역은 열대기후이며 연평균기온은 북부지역 22℃, 남부지역 24℃, 환태평양조산지대에 위치하여 지진이 많고 고산에 수직절벽이 많음
- 통 화 : 신 타이완 달러(New Taiwan dollar, NT\$)

◎ 정치

- 대만은 1949년 국공내전(國共內戰)에서 패배한 장제스(蔣介石) 중국국민당(이하,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넘어오면서 중화민국을 계승하고 있으며, 대만 내정부 민정사에 등록된 정당수만 총 301개에 달하는 가운데 현 집권당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과 제1야당 국민당, 제2야당 친민당 등 소수 정당이 정치를 주도하고 있음.
- 대만의 정권은 2000년 민진당 천수이벤(陳水扁)이 총통으로 당선되며 최초 정권교체가 이뤄지기 전까지 1949년부터 장장 50년 동안 국민당이 집권했음. 2004년 천수이벤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민진당이 8년 동안 집권했으나 집권기간 동안 중-대만 관계 악화와 천수이벤의 부정부패 혐의로 민심을 잃었고, 2008년 대선에서 마잉지우(馬英九)가 당선되며 국민당이 재집권하게 되었음.
- 마잉지우 정부는 중-대만 관계 개선에 주력을 기울였으나 중국 의존도 심화로 반발을 샀으며 경기부양에 실패, 2016년 총통 대선과 입법위원(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진당에 참패했고 두 번째 정권교체가 이뤄졌음. 2000~2008년 천

수이벤 총통 시절, 행정부는 민진당이 집권했으나 입법부는 국민당, 국민당과 정치노선을 같이하는 친민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민진당의 완전 집정은 2016년 대선·총선에서 이뤄졌음.

- 대만의 정치는 크게 녹색과 남색으로 구분하는데, 각각 민진당과 국민당의 정당색을 의미하며, 중-대만 관계 입장 차이를 기준으로, 친(親) 중국 성향은 남색, 대만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쪽은 녹색으로 구분 짓기도 함. 남색 계열 정당은 국민당, 친민당, 신당 등이 있으며, 녹색 계열은 민진당, 시대역량, 대만단결연맹이 대표적임.
- 대만도 지역별로 정치성향의 양분화 현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만의 지역별 정치색은 北藍天 南綠地(북쪽은 푸른 하늘, 남쪽은 녹지)로 형용되곤 하는데, 북·중부 지역은 국민당 지지층이 두텁고 남부는 민진당이 텃밭으로 삼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경기부양 실패와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국민당 지지 기반이 약해짐에 따라 2014년 지자체장 선거에서 관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음. 이 선거에서 민진당이 대승을 거두며 국민당은 지자체장 6자리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과거 국민당의 표밭이었던 타이베이시와 타이중시 시장 자리도 각각 무소속 후보와 민진당에 내주면서 국민당은 열세로 밀려났다
- 중앙정부체계
 - 대만은 쑨중산(孫中山)*이 제창한 5권 분립체계에 입각해 '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으로 나누고 있음.
 - * 한국에서는 쑨원(孫文)으로 익숙하며 대만에서는 국부(國父)라 불린다. 타이베이시 관광명소로 유명한 국부기념관이 바로 쑨중산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곳이다.



그림 1 대만의 중앙정부체계

◎ 한국-대만 주요 이슈

○ 대만은 대한민국 최초의 수교국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했고, 한국전쟁 당시 특수전 요원을 비밀 파병하기도 했으며, 1992년 8월 한국-중국 수교로 대만과 단교되면서 반한 감정이 고조됐으나, 활발한 경제·문화 교류로 對한국 인식은 다소 호전됐으나 추가 개선 노력이 필요함.



그림 2 한국-대만 외교 관계 연대표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한국과 대만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1948년 8월 13일 한국과 대만은 공식 수교를 맺고 상호 간 공관을 설치했었음. 1949년에는 대만 장제스 총통이 한국을, 1966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하기도 했었으며, 양국은 1952년 항공협정, 1961년 무역협정, 1965년 문화협정, 1983년 해운협정, 1986년 항공운수협정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음.
- 이처럼 45년간 긴밀히 유지되던 양국의 외교관계는 1992년 8월 23일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기 위해 대만에 단교를 선언함으로써 종지부를 찍게 된다. 1971년 중국이 UN에 가입한 당시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기존에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국가들이 하나둘씩 대만과 단교를 선언했으나, 문제는 ‘한국의 일방적 단교 선언’이 대만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것임. 단교 후 대만은 한국 수입 자동차 쿼터제 폐지, 한국 과일 수입 금지, 한국 기업의 토지개발 프로젝트 참여 금지 등 한국과의 모든 왕래를 중단했음.
- 기존 인천국제공항-타오위안(桃園)국제공항 직항노선뿐만 아니라 2012년 4월부터 김포공항-송산(松山)공항 직항 운행이 개시됐음. 송산공항은 타이베이 시내에 위치한 공항으로 교통편과 시내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비즈니스 방문 및 여행객들의 편의가 크게 증대됐음. 또한, 한국과 대만은 2012년 7월 1일부터 상호 무비자 방문기간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여행객 및 비즈니스 출장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한국과 대만을 오갈 수 있게 됐음.

- 대만인의 한국 방문의 경우 한류열풍으로 인해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한 편이며, 대만을 방문한 한국인의 경우 2013년 예능프로 ‘꽃보다 할배 대만편’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인의 대만 방문이 급증하기 시작했음. 대만 내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수의 대만인이 한국을 방문했음.
- 그러나, 한국관광공사 관광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은 대만 경기 침체 및 엔저의 영향으로 대만인의 방일 관광객의 증가, 메르스 영향 및 대만 방문 한국인 증가에 따른 항공티켓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인해 대만인의 한국 방문은 전년대비 감소했음
- 2000년 11월에는 한-대만 민간경제협의회가 복원되고 2007년 8월에는 한-대만 의원친선협회가 결성됐으며, 또한 서울-타이베이 포럼, 서울-타이베이 클럽 등의 정계 및 기업 교류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서울시와 타이베이시 등 한국과 대만의 지자체 간에 자매결연 체결을 통한 우호교류도 이어지고 있음.

2. 방문도시 현황

◎ 타이페이(Taipei)

- 대만의 수도로 북쪽은 다툰[大屯] 화산군, 서쪽은 린커우[林口] 분지, 동쪽과 남쪽은 중앙산맥으로 둘러싸인 타이베이 분지의 중심에 있다. 시가지는 북쪽으로 흐르는 단수이강[淡水河]의 동쪽에 펼쳐짐.
- 아열대기후로 여름철 평균기온은 28℃, 겨울철 평균기온은 15℃ 전후이며, 우기(雨期)가 비교적 길다. 한족(漢族)이 이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말부터이며, 18세기 초에는 단수이강 연안에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이 마을이 완화[萬華]이다. 이곳은 하항(河港)으로서, 오지에 사는 고산족(高山族)과의 교역기지였으며 대륙과의 교역을 위한 주요 무역항으로 번창하였다.
- 19세기 중엽부터 하도(河道)가 점차 알아져 완화에 배가 정박하기 어렵게 되자 하류(북쪽)의 다다오청[大稻?]으로 항구를 옮겼다. 이곳은 주로 차(茶)를 반출하는 수출항 구실을 하였다. 1875년 타이중[臺中]의 대만부(臺灣府)가 이곳으로 옮기면서 타이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1879~1882년의 공사 끝에 5개 성문을 가진 성벽이 완성되었다. 당초 타이베이성(城) 안은 대부분 논이었으나 차차 점포가 세워지고 시가지가 이루어져 상업이 활발해지면서 청내이[城內]·완화·다다오청 등 세 지구를 갖춘 도시가 되었다.
- 1895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난 후에는 성벽이 제거되고, 그 자리에 너비 40m의 3선도로(三線道路:지금의 中山南路·中華路·中正路·愛國西路)가 건설되었다. 서문(西門) 이외의 동문(東門:景福門)·남문(南門:麗

正門)·소남문(小南門:重熙門)·북문(北門:承恩門)의 4개 성문은 지금도 남아 있다.

- 이 성문을 잇는 도로로 둘러싸인 청내이구[城內區]에는 총통부(總統府)·타이완 은행·군사령부(軍司令部)·박물관·방송국 등의 중요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타이베이의 중추를 이룬다.
- 또 청내이구의 서반부는 중화로[中華路]를 따라 고급상점들이 늘어서 있어 쇼핑센터의 구실을 하며, 중화로의 서쪽은 영화관·식당 등이 많은 오락지구이다. 완화·다다오청은 슬럼화 양상을 보이나, 완화의 룡산사[龍山寺], 다다오청의 청황묘[城隍廟]에는 참배객이 많다.
- 시의 북동쪽에 타이베이 국제공항, 남동쪽에 타이완대학이 있다. 또한 타이베이 교외의 도로 연변에는 방직공장·제분공장·자전거공장·화학비료공장이 늘어서 타이베이 공업지대를 형성한다.

□ 타이베이 시의회(Taipei City Council)

- 의원 및 선거구
 - 의 원 수 : 63명
 - 선 거 구 : 8개(6개 선거구에서 61명, 2개 선거구는 원주민 2명)
- 의회의 권한 및 실무
 - 현의 규칙 및 장정 결의, 예산 결의
 - 현의 특수세금, 임시세금 및 부가세금 결의
 - 현의 재산처분 결의
 - 현의 중부조직 자치조례 결의 및 해당 사업기관 조직 차치조례 결의
 - 현의 정부 제안사항 결의
 - 현의 정부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 심의
 - 본 의회 의원 제한사항 결의
 - 시민 청원 접수
 - 기타 법에 따라 집행실무 및 상급법에 부여된 권한
- 의회 조직
 - 의장, 부의장, 비서장 이하 8개 팀, 9개 위원회 및 심사회로 구성

- 운영 이념
 - 대만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이끌 리더십으로 효율적 운영 방침을 지키며 전문화 정치 자문공간을 개척해 오면서 국제화 정부 교류를 중요히 함
- 현 황
 - 타이페이시의 지방자치제는 1946년 처음으로 만들어져 1949년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으며, 시장은 시의회 의원들에 의해 선출되어, 1967년에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음. 그 후 시장선출은 국무총리가 직접 임용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으며, 1969년 12월 25일 조직이 재개편되었음.
 - 대만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모범국가답게 여성의 의회 진출을 위해서 '여성당선할당보장제' 라는 선거제도가 있어서 당선자 중 4분에 1은 여성을 우선 당선시킴.



타이베이 시의회 본회의장



타이베이 시의회 3층 VIP 관람실

◎ 현장방문 결과

- 현장방문시 의회 회기중으로 교통건설위원회 시정질의를 하고 있었으며, 관련 실국 공무원은 모두 착석하여있으나, 의원들은 3~4명만 자리하고 있었음(의원 1인당 시정질의를 18분정도 하기 때문에 그시간에 질의할 의원만 자리를 한다고함)
- 방문단이 3층 VIP 관람석에 도착하였을 때 본회의장 정면의 좌우 전광판을 통해 대한민국 전라남도 완도군 의회 대표단 환영 문구와 함께 의장님의 소개 멘트를 함.
- 5층 접견실에서 의장님은 회기중임으로 부속실 비서실장의 현황 설명과 함께 방문단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짐.
- 박중연 의장님은 인사말에서 완도군은 전복과 해조류등 풍부한 해산물의 주산지임과 그로인한 소득수준이 높고, 특히 이번에 완도국제해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많은 수출계약을 하였음을 설명
- 김동삼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지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의원들의 보수에 대해 질의 하였고
⇒ 타이페이 시의원은 전원 선거로 선출되며, 직원들의 인사권은 의장에게 있으며,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없으며 대신 연구비, 참석수당, 교통비, 숙박비등을 지급한다고 함
- 서울윤 부의장은 타이페이 시의회도 국내·외 연수를 가는지와 시의원들의 정당분포에 대해
⇒ 연수비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1년에 600만원정도를 활용하여 갈수 있으며, 해외의 경우 두 번정도 가는데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단장으로 의원 8명 반원 3명, 행정직원 3명등 총14명이 1팀으로 두 번 한다고 하며, 국민당 27, 민진당 27, 나머지는 소수당, 무소속이 있으며, 의장

은 선거하여 과반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함.

- 박성규의원은 비리나 기타 사유로 인해 의원 공석이 생겼을 경우 보궐선거여부에 대해
⇒ 의원 공석이 생겼을 경우에 보궐선거는 하지 않고 선거구내에서 다음 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한다고 함
- 조인호 의원은 대통령 탄핵제도가 있는지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였음.
⇒ 탄핵제도는 있으며, 의장은 시장과, 부의장은 부시장과, 의원들은 처장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고 함.
- 질문답변 후 기념품을 상호 교환하였음.

❁ 주요벤치마킹 사항

- 집행부 상대 질문이 의원별로 상임위에서 집행부 공무원과 시장을 상대로 각각 정해진 시간동안 질문을 하는데, 우리도 군정질문 답변시 질문시간을 일정하게 정하여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5층 접견실에서 질문답변중



타이페이 시의사당을 배경으로

□ 타이페이시 재해응변센터

○ 현 황

- 2007년 12월 12일에 개설된 대북시재해응변중심(TAIPEI E.O.C)은 臺北市 信義區 莊敬路 391巷 11弄2號 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진, 풍수해 등 각종 재난 상황 발생시 소방과 경찰, 긴급보고센터, 교통제어센터, MRT운영센터 등을 통합, 여러 부서 및 지국에서 수집된 재해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한 타이페이시를 구축하기 위한 통제운영센터
- 대북시재해응변중심(TAIPEI E.O.C)의 주요 업무는 재난 발생 및 사전 예측 등의 보고서 작성, 통신, 동원, 파견, 조정 등 재해 발생의 모든 통합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진 대비 L 및 시험, 운동 및 훈련, 보고, 모니터 등의 일일 작업을 수행
- 대북시재해응변중심(TAIPEI E.O.C)은 모든 종류의 재난에 대해 안전한 타이페이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보다 인간 친화적인 작업환경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대만의 재해관련 법 및 제도

- 재해방구법 : 방재체계의 정립, 방재능력의 향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토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음. 총 8개 장 52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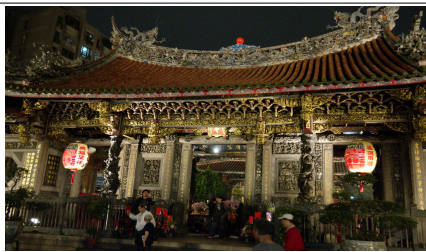
장	제 목	관련조항	주 요 내 용
제1장	總則	제1조~제5조	· 법제정 목적 · 용어천연재해와자연재해 재해방구등의정의 · 재해원인별소관부처 · 중앙및시·현지방정부의주관기관명시
제2장	災害防救組織	제6조~제16조	· 행정원중앙재해방구회보의임무및구성 · 直轄市, 縣(광역 재해방구회보의임무및구성) · 鄉 鎮 市(기초 재해방구회보의임무및구성) · 중앙및지방災害應變中心의설치등
제3장	災害防救計劃	제17조~제21조	· 災害防救基本計劃수립절차 · 재해방구기본계획의내용및규정 · 지방재해방구계획수립및내용
제4장	災害預防	제22조~제26조	· 중앙및지방의예방업무재해방구계획 교육 훈련등 규정 · 중앙및지방의예방사업내용등
제5장	災害應變措施	제27조~제35조	· 각관련부서의재해응급조치내용경보발령등 · 災害應變中心참여자의임무 · 각종기관군인 경찰 정부및공공기관 민간단체등의응급대응관련규정
제6장	災後復原重建	제36조~제37조	· 重建推動委員會의구성및역할
제7장	罰則	제38조~제42조	· 최고50만T\$(약2,000만원까지벌금부과 ※ 재해응변중심의장이전문직업및기술인원동원에불응하는경우등재해대응조치불응자에대하여벌금부과
제8장	附則	제43조~제52조	· 재해대응조치시동원자보상 · 시행시기등

✿ 주요벤치마킹 사항

- 재해발생시 신속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24시간 상시 비상대비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용산사

- 용산사는 중화민국 타이페이 시에 있는 사원으로 타이페이 시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다.
- 1738년 청나라 시절에 중국 복건성 이주민들에 의해 세워진 사찰로, 소실되어 현재의 건물은 2차 세계대전 뒤 1957년에 다시 지은 것이다.
- 돌기둥에는 조화를 이루며 조각된 용 뒤쪽에 역사적 인물들의 춤추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지붕에는 더 많은 모습들과 용들이 장식되어 있다.
- 이곳은 전형적인 타이완 사찰로서 도교, 불교, 토속신 각 종교의 색채가 서로 조화를 이뤄 어우러져 있다.
- 대만을 돌아다니면 흔히 불교사원과 도교 사원을 많이 볼수 있는데 지붕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곳은 도교 사원이고 불교사원은 지붕이 장식이 없다.
- 용산사는 도교와 불교가 복합된 사원으로 많은 대만사람들이 찾는 사원이며, 이곳에 도착했을 때 많은 주민들이 불경등을 외우며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며, 행운을 빌기 위한 의식들이 있었고, 특이한 것은 입장료가 없었다.



용산사 - 많은 대만인이 기도하고있다



용산사에서 무슨 소원을...

☞ 주요벤치마킹 사항

- 사찰 관광지 개발 : 전통사찰인 완도신흥사의 템플스테이, 타종체험, 불교학교 운영으로 관광활성화 유도가 필요함.

□ 지우편

- 과거 이 마을에는 모두 아홉 가구가 살았는데, 인근 마을에서 들여온 생필품 등을 아홉 집이 나누어 가졌다고 하여 지우편(九份)이라 불렀고, 이후 공식적인 지명이 되었다. 1893년까지는 고립된 마을이었으나, 이 지역에서 금맥이 발견되고 금광으로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마을이 발달하게 되었다.
- 특히 일제 강점기에 호황을 누렸으며 오늘날까지 당시에 지어진 일본식 건물들이 남아 있어 중국과 일본의 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포로 수용소가 세워져 연합군 포로들이 이곳에서 금광 노동을 하기도 했다. 종전 이후 금광은 점차 쇠락하였고, 1971년에 폐광되었으나, 1989년에 이 마을을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 비정성시(悲情城市)가 큰 인기를 얻으며 관광 명소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다.
- 구불구불 이어진 비탈길을 따라 늘어선 예스러운 건물들이 골목마다 묻어나는 낭만적인 정취, 흥등이 빛나는 이국적인 풍경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마치 오랜 옛날로 시간 여행을 떠나 온 듯 이색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웅장하거나 화려한 볼거리는 없지만 미로처럼 엮인 골목과 계단을 느긋한 걸음으로 산책하며 여행 중

호흡을 가다듬기에도 좋은 곳이다.

- 지우편에서 가장 변화한 곳은 '지산제(基山街)'라는 골목길로 이곳에는 아기자기한 기념품이 가득한 가게와 음식점, 카페 등이 줄줄이 늘어서 항상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곳의 명물로 통하는 샤오츠, 땅콩 아이스크림, 꼬치구이, 위위안 등을 맛보자. 가격도 저렴해 이것저것 다 맛보아도 부담이 없다.
- 지산제를 따라 걷다가 사거리 오른쪽으로 나오는 급경사의 계단 길이 바로 수치루다. 수치루는 영화 <비정성시>의 배경이 된 거리로 지우편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좁고 가파른 돌계단을 따라 분위기 좋은 전통 찻집들이 줄지어 있다. 전망 좋은 찻집에 앉아 향긋한 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낭만적이다. 술과 우롱차, 꿀을 섞어 만드는 '구이화차주'로 유명한 아메이차주관도 수치루에 있다.
- 금광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도시이나 폐광과 함께 쇠락의 길을 가다가 영화촬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변모하여 산골짜기에 있는 동예의 특성상 관광버스는 이곳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주차장을 만들어 모든 버스는 그곳에 주차하고 주차장과 지우편을 오가는 순환버스를 이용해야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관광지의 자연훼손은 최소화 하고, 순환버스 운영으로 또 다른 일 자리를 창출한 경우라 할 수 있다

❁ 주요벤치마킹 사항

- 폐광 관광활성화 시책으로 노화 광산에 대한 관광 개발도 필요함.

□ 야류지질공원

- 타이베이 북부 해안에 위치한 희귀한 모양의 바위들이 해안의 작은 곳에 조성된 야류지질공원은 침식과 풍화 작용을 거쳐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암을 보러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입구를 통과하면 바위들이 늘어선 바닷가가 나온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기이한 바위들을 바라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사차원의 세계에 와 있는 듯 초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아래가 움푹 파인 버섯 모양 바위가 가장 흔하다.
- 야류지질공원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는데 공원에 들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선상암 군락이다. 바위 하나하나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버섯이 큰 머리로 하늘을 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선상암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은 고대 이집트의 왕비 네페르티티의 두상을 닮아 이름 붙여진 '여왕 바위'다. 바위를 자세히 보면 높게 틀어 올린 머리와 가녀린 목선, 코와 입 자리가 선명하게 느껴져 자연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 바위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려는 관광객들로 늘 인산인해를 이룬다.
- '촛대 바위'는 야류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해식 경관이다. 해식 과정을 통해 남겨진 촛대 위의 촛불 모양 암석층이 인상적이다. 그 밖에도 크고 작은 구멍이 가득한 '별집 바위', 네모반듯한 눈두렁 모양으로 놓인 '바둑판 바위', 울퉁불퉁한 모습을 한 '생강 바위'등 특이한 모양으로 인해 고유한 이름이 붙여진 바위들이 즐비하다.
- 야류공원은 사암지대에 침식작용으로 인하여 기암들이 많은데 독특한

바위에 닮은꼴 이름을 붙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통제선을 만들어 계속 침식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보존을 하고 있어,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이나,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2, 3 구역을 보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다.

❁ 주요벤치마킹 사항

- 야류공원 못지 않은 각종 기암괴석이 많은 금당을 한바퀴 순회하는 관광유람선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01타워 전망대

- 통칭 ‘타이베이101빌딩’으로 불리고 있는 타이베이국제금융센터는 지상101층, 지하5층, 총 508미터로 한때 세계최고의 높이를 자랑했다. 타이완의 세계적 건축가 리주웬(李祖原)이 설계한 타이베이 101 빌딩은 만개한 꽃이 첩첩이 포개어진 형상 같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죽순의 모습을 닮은 듯도 하다. 8층씩 묶어 총 8개의 층으로 올렸는데, 이는 숫자 ‘8’이 중화 문화에서 성장과 번영, 발전 등을 의미하는 한자 ‘發’과 발음이 같은 길한 숫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 삼성건설에서 시공하고 대만의 주요 은행, 보험사와 증권거래소 등이 공동 투자한 타이베이금융센터컨소시엄이 17억만 달러(약 2조억 원)의 공사비용을 들여 대지 9,159평, 연면적 10만8,200평 규모로 9층부터 84층까지는 일반 사무실로 사용되며, 92층 이상은 통신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로 공식 인정받은 101빌

딩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분속 1,010m이다. 5층 매표소부터 89층 전망대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겨우 37초. 고속 엘리베이터는 한번에 24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며, 전망대에는 동전 투입식 고도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어 시내 곳곳을 조망해 볼 수 있다.

◎ 101 빌딩의 방재시스템

- 대만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01빌딩에는 특수한 내진설계를 하고 있다. 진자(흔들이)형 제진 장치(TMD: Tuned Mass Damper)는 금색으로 도장된 지름 5.5m, 무게 680t의 거대한 쇠공으로 92층에서 88층에 이르기까지 4개 묶음(1묶음은 12cm 줄 4개로 이루어짐) 42m 길이의 큰 줄로 매달려 강풍과 지진에 따른 요동으로부터 빌딩을 보호한다.
- 세계 최대 최고중량 풍속감쇠기를 갖추고 있으며, 직경 5.5미터, 실제 중량 660톤, 소요비용 한화 약 45억원이다.
- 빌딩의 지하지주는 360개이고, 지하 80미터에 달하는 말뚝으로 가장 깊은 것은 암반 아래 30미터에까지 달하고 있다.
- 이중 장막 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8톤의 중력을 견딜 수 있고, 아울러 격열 및 자외선 격리 기능을 갖춰 안전과 환경보호의 설계를 겸비하고 있다.
- 전력 중단 시 긴급발전기 시스템을 가동하며 전체 빌딩 70%의 전력 수요를 공급할 수 있다.
- 방진설계는 2500년 주기의 대지진을 견딜 수 있는 구조 설계이고, 방풍설계는 17급 매초당 60미터 이상의 풍속을 견딜 수 있는 구조설계이다.
- 소방설비는 전 빌딩이 완벽한 지혜형 소방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34층

이상에는 매 8층마다 안전피난실과 옥외피난처를 두고 있다.

✿ 주요벤치마킹 사항

-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대형건물을 신축시 반드시 내진설계가 필요하며, 이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할 때임.



□ 국립고궁박물관

- 국립고궁박물관은 민국 14년(1926)에 정식으로 완성되었다. 주요 수집품으로는 청나라 자금성의 진귀한 보배가 있으며, 송·원·명·청나라의 물건이 수집되어 있다. 서화, 옥기(玉器), 도자기, 조각 등이 있으며 전쟁 등 많은 시간이 흐르고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진 후, 모든 물건들은 대만으로 건너오게 되었다. 민국 54년에는 타이베이 외곽 쌍계지역에서 새로 건축하여, 이를 중산 박물관으로 명명했다. 국부 손중산(손문)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타이베이로 확장 이전하여 지금의 규모가 되었다.
- 고궁박물관의 소장품은 중국 미술품이 주종을 이룬다. 유물은 원 고궁 박물관 소장품인 기물 46,100점, 서화 5,526점, 도서문헌 545,797점과, 원 중앙박물관 소장품인 기물 11,047점, 서화 477점, 도서문헌 38점으로 총 608,985점에 달하여 그 수량만으로도 이는 가장 방대한 규모의

중화민족 문화자산이라 할 수 있다.

- 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는 위에서 언급한 두 기관의 유물 이외에도 그 후 다른 기관에서 이관되어 온 것, 외부로부터 기증된 것과 매입한 것 등이 있다.
- 타이완에서 다시 박물관을 개관한 이후, 소장품을 보충하는 작업 또한 끊임없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1967년부터 2004년 11월 사이에 증가한 기물, 서화, 도서문헌 등 유물 가운데,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것이 1,651점, 기증 받은 것이 31,995점, 매입한 것이 12,525점, 총 46,171점이 늘어나 소장품의 다양성과 전시 콘텐츠의 다양성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 이렇게 수집한 소장품에는 청나라 공왕부(恭王府)의 자단가구(紫檀家具: 자단목으로 만들어진 최고급 가구), 북송시대의 진박서련(陳搏書聯), 북송 시대의 소식(蘇軾)의 황주한식시권(黃州寒食詩卷), 당나라의 춘뢰고금(春雷古琴), 춘추시대의 자범편종(子犯編鐘), 육조시대의 북위 이후 역대 금동불상, 당나라 현종(玄宗)시대 선지지옥책(禪地祇玉冊), 남송시대 주희(朱熹)의 역계사권(易繫辭卷), 고대 북방 벽화 수행보살, 근대 장따첸 선생의 여산도권(廬山圖卷), 이외에 다량의 선사시대의 옥기, 도기, 은나라와 주나라시대의 청동기 그리고 청대 가경(嘉慶)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유명 서예 및 화가의 서화 작품 등이 있다.
- 1965년 8월 타이페이 와이쌍시(外雙溪)의 신관이 준공되었고, 장제스(蔣介石) 총통이 국부인 손중산(孫中山)을 기념하는 "중산박물관" 현판을 헌정했다. 같은 해 11월 12일 공식 개관되었다.

- 신관은 중국 궁전 스타일의 4층 건축물로서 추녀 끝이 하늘로 날아갈 듯 화려하고 녹색 기와와 황색 상량으로 꾸며졌다. 그 후 1967년과 1969년 두 차례에 걸쳐 확장 공사를 했고 1985년에 전시장을 리모델링 해서 현재 1층, 2층, 3층은 전시 공간으로 이용되고 4층에는 휴식공간인 "산시탕(三希堂)"이 들어서 있다.
- 1984년에 시공된 박물관의 왼쪽에 있는 "즈산원(至善園)"은 중국의 전통적인 정원 개념이 도입되어 건물과 조형석이 조화를 이루고 소박한 다리와 흐르는 물소리, 깨끗한 연못은 한정한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 박물관 오른쪽에는 개방적인 "즈더원(至德園)"이 들어서 있다. 즈더원에는 굽이굽이 다리와 연못과 아담한 정자가 들어서 있다.
- 마지막으로 1983년 5월, 장따첸(張大千)선생의 가족이 장따첸 선생의 생전 거주지인 "모야정서(摩耶精舍)" 를 박물관에 기증했다. 서재에는 장따첸 선생의 밀랍인형이 세워져 있어 살아 있는 듯한 느낌을 전해준다.



☞ 주요벤치마킹 사항

- 완도군에서 운영중인 장보고기념관과 어촌민속전시관에 현재 보유중인 전시물 외에도 타박물관 및 전시관과 협력하여 전시물을 상호 교환



전시 및 특별전시전등을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 필요함.

□ 충렬사

- 대만 국민혁명과 대일 전쟁 중에 전사한 애국지사 및 장병들의 영령을 모시기 위하여 건립된 성역이다. 1969년 5만여 헥타아르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베이징의 태화전의 형태를 빌어 만들어졌다.
- 이곳에는 전사한 군인들의 사진, 동상, 훈장 등을 모아 놓았으나 내부는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 충렬사의 볼거리로는 매시간 벌어지는 위병 교대식을 손꼽을 수 있다. 육·해·공군 의장대들이 3개월마다 주기적인 교대 근무를 하는데, 위병들은 정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본전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되는 거리를 행진하여 교대식을 벌인다.
- 의장대를 전역하면 공무원으로 근무가 가능하여 경쟁률이 치열하며, 매 정시에 이루지는 근무교대식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 중정기념당

- 중정기념당은 타이완의 역사와 국민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 꼭 둘러보아야 타이베이 명소로 타이완의 초대 총통이자 타이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추앙받는 장제스(蔣介石)를 기리는 기념당으로 1975년 장제스 총통이 서거하자 그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기념당 설립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1980년 4월 5일 중정기념당이 정식 개관했다.
- ‘중정’은 장제스의 본명으로 2007년 ‘타이완의 국부’로 국가적 존경을 받는 장제스의 영향력을 없애려 한 민진당의 주도로 ‘타이완 민주기념관’으로 잠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타이완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에게는 여전히 ‘중정기념당’이 더 친숙하다 한다.
- 25만㎡에 이르는 자유광장에 우뚝 선 높이 70m의 건축물이 중정기념당으로 웅장한 외관이 시선을 압도한다. 중정기념당에 입장하려면 총 89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89라는 숫자는 장제스가 서거한 나이를 뜻한다. 계단 위에는 거대한 장제스 동상이 서 있다. 동상 앞을 지키는 근엄한 표정의 근위병들을 볼 수 있으며 매 시각 정시에 근위병 교대식이 이루어진다. 장제스 동상의 아래층에는 그의 집무실을 재현해 놓았다. 1층 전시실에는 장제스의 생애를 엿볼 수 있는 사진과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 ‘자유광장’이라는 현판이 걸린 아치형 정문은 명나라식 건축이다. 타이베이 관광 엽서나 기념품에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다. 자유광장에는 중정기념당 외에도 연극과 콘서트 등이 개최되는 ‘국립희극원’과 ‘국립음악청’이 있다. 중정기념관과 가까운 거리에 삼각형 구도로 하나씩 배열되어 있다. 드넓은 광장의 나머지 공간은 시민 공원으로 이용되어 다양

한 야외 행사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 주요벤치마킹 사항

- 장보고동상은 동상이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기념사진을 찍기가 쉽지 않으므로 축소판으로 제작하여 포토존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중정기념당 전체 배치도 설명



중정 동상 앞에서

□ 화련 태로각 협곡

- 타이베이 태중(台中, 타이쑹)시의 중앙 횡단고속도로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는 화련(花連, 화리엔) 태로각 협곡은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19km의 협곡기슭으로 도로와 터널을 뚫어 관광객을 맞고 있다.
- 태로각 협곡은 북에서 남으로 산맥이 이어져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중국 본토와 전쟁을 대비해 퇴각로로 이용하기 위해 장제스가 본토에서 퇴각할 때 같이 온 20만 군인들과 죄수들이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약4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 태로각 협곡에는 장춘사, 연자구, 구곡(九谷)동 등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며, 협곡과 터널 안은 시원해 피서지로 안성마춤일 듯 하다.
- 화련은 공예가들의 채석지(採石地) 구실을 하고 있으며 대리석 및 옥

제품들을 가공해 판매하고 있다.

- 소수민족인 아미(阿美, 우라이)족의 근거지인 화련에서는 아미족이 민속공연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 마침 우리가 찾았을 때는 중국의 3대 명절중 하나인 단오 연휴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또한 중부횡단도로를 연결하는 다른 도로가 산사태로 통제되어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협곡 안쪽까지는 가지 못하고 원주민들이 만들어 다니던 도로와 이 협곡의 도로를 건설할 당시 죽은 사람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장춘사를 멀리서 관람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타이페이로 돌아와 아쉬움을 남겼다.

❁ 주요벤치마킹 사항

- 청산도 슬로길이 완도군의 대표적인 걷는 길이지만 다른 읍면 특히 소안, 생일의 가고싶은섬 개발시 각종 테마가 있는 숲길을 개발하여 홍보한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사료됨.

VI 및 총평

- 대만 타이페이시 의회를 방문하여 정치문화를 경험하면서 대만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의 활동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지방자치로 인해 선거제도가 우리와 달리 대선거구제

도이고 특이하게 의원 궐위시에 보궐선거가 아니 다음 득표자가 의원직을 수행하게 되어 보궐선거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검토해 볼만한 하다 하겠음.

- 또한, 대북시재해응변센터를 통해 우리나라도 최근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대비 및 재난발생 시 조치 및 방법에 대한 매뉴얼 수립을 통해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완 및 발전을 위해 방재 선진국인 대만의 방재시설 견학을 통해 선진 시스템을 체험 및 습득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음.
- 대중교통 우선정책 및 도로계획 운영실태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부의 효율적 대처,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실태와 개선정책을 파악의 결과 많은 오토바이를 통한 교통문화를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예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모두 헬멧을 쓰고 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보면서 대만의 준법정신을 엿볼 있었음.
- 대만의 거리에서 쓰레기봉투 등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는 청소차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 방송을 틀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청소차에 직접 상차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쓰레기 불법투기나 비규격봉투 사용 등의 문제, 그리고 쓰레기를 한곳에 쌓아놓음으로 인한 거리의 오염 등을 전혀 볼 수 없었음
- 지난 4박 5일은 비록 길지 않은 일정이긴 하였지만 주어진 여건을 탓하지 않고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으려는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 우리나라보다 긴 식민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위협을 받고 있고, 부존자원이 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아시아의 선진 국가로 발돋움한 그간의 성장과정을 우리나라와 비교 하며 살펴보면, 바람직한 완도의 미래상을 멀리 해외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자리였다.

- 이번 연수에 참여한 의원 및 직원들 모두는 연수에서 보고, 듣고, 배운점을 토대로 완도군의 발전을 위하여 한층 고심할 것이며, 또한 이번 연수에서 보고 느꼈던 점을 행정 및 의정활동에 적극 적용하며 노력할 것이다.





TAIPEI CITY COUNCIL

The **12**th City Council with Special Municipality

